

2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배울 말씀

마가복음 11:15-19 (고린도전서 3:16-17)

읽을 말씀

마가복음 11:15-18

외울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전 3:17).

메인 아이디어

하나님의 백성은 욕심을 버리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포인트

거룩한 내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라!

목표

- 1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음을 안다.
- 2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알고 믿는다.
- 3 거룩한 내가 되어 하나님을 섬긴다.

준비물

성경, 생각마당 시각자료 2과, 말씀마당 그림책(가림막, 별지 2과 '제사'), 어린이용 교재, 필기도구, 풀, 투명 테이프, **B** 질문 카드 2과, **B** 가위

설명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은 복음서에 모두 기록될 만큼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 마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 날 성전에 방문하시어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고 기록했다.

성경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성전 앞뜰에서 화폐를 바꾸어주거나 제물을 파는 장사가 대대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다. 이 일이 나쁜 의도로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당시 유대 전역에서 로마의 화폐가 통용되었는데, 성전세는 유대의 화폐로 납입해야 했다. 로마에서 발행하는 대부분의 동전에 황제의 모습이 각인되어 있어서, 유대인들이 이를 하나님께 드리기 꺼려했던 것이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생활할 때 사용하는 로마의 화폐를 성전에서 사용하는 유대의 화폐로 바꾸어주는 것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시작된 일이었다. 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먼 곳에서부터 오는 사람들이 제물을 손상 없이 가져오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제물을 파는 일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시작된 일이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성전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처음 의도에서 변질되어 심각하게 타락하고 있었다. 원래 값보다 더 많이 받고 화폐를 바꾸어주거나 비싸게 제물을 팔면서 신앙을 이용해 욕심을 채우기 시작한 것이다. 사람들이 먼 곳에서부터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오면, 제사장들은 제물에 흠이 있다고 트집을 잡아 성전에서 파는 제물을 사게 했다. 그리고 상인들에게 수수료를 받아 이익을 챙겼다. 예레미야스(Joachim Jeremias)는 그의 저서 『예수시대의 예루살렘: 신약성서시대의 사회경제사 연구』에서, 주후 66년 유월절에 성전에서 제물로 드려진 양은 무려 255,600마리였다고 요세푸스의 기록을 빌려 소개하고 있다. 숫양이나 숫염소의 당시 가격인 8데나리온으로 그 가치를 추산해도 200만 데나리온 이상인데, 양 이외에도 여러 동물들이 제물로 드려졌으니 얼마나 많은 돈이 성전으로 몰렸을지 짐작하기도 어렵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실로 엄청난 금액이다. 실제로 당시 성전은 중앙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 전해진다. 부자들은 재산 관리를 성전에 맡기기도 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판매할 제물 확보를 위해 여리고 등의 지역에 농장을 운영하기도 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단언하셨다(막 11:17). 신앙을 이용해 욕심을 채우려는 타락에 빠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성전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변질시켜버렸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며 하신 이 말씀은, 지금까지는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희생 제물로 많은 동물이 필요했지만 우리의 죄를 단번에 대속하기 위해 예수님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더 이상 성전에서의 속죄 의식이 필요 없어질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이기도 하다.

2과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우리도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알게 하자. 그리고 욕심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자.

참고 단어

제물 | 레위기에는 동물을 희생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규정이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규정을 따라 자신의 죄를 전가받고 죽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회개, 속죄, 헌신 등의 결단을 통해 다시 거룩하게 됨을 얻었다. 예수님 당시 제물로 사용되는 동물의 가격은 종마다 차이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소는 100데나리온, 송아지는 20데나리온, 숫양이나 숫염소는 8데나리온, 새끼 양은 4데나리온이었다. 그리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비둘기는 1데나리온 정도였다. 그런데 미쉬나의 기록에 따르면 유월절에 거래된 비둘기의 값이 25데나리온까지 올라간 적도 있다고 한다. 예레미야스에 따르면 1년에 평균 300만 마리 이상의 제물이 드려졌는데,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고 상급 서기관인 경우 2데나리온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성전 경제의 크기를 짐작해볼 수 있다.

[참고 문헌] 예레미야스(Jeremias), 『예수시대의 예루살렘: 신약성서시대의 사회경제사 연구』, 한국신학연구소번역실 역(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2).

Reid, Daniel G. (ed.), *The IVP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A One-Volume Compendium of Contemporary Biblical Scholarship*, IVP(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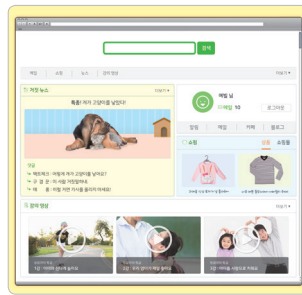
생각마당

READY!

- ① 성경을 준비한다.
- ② 생각마당 시각자료 2과를 준비한다.

GO!

변질된 인터넷 활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예수님 시대의 변질된 성전에 대해 생각해본다.



(생각마당 시각자료를 보여주며) 여러분, 인터넷이 무엇인지 아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터넷은 무엇인지, 또 여러분은 인터넷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야기 해보세요. (대답을 듣는다.)

그렇군요. (생각마당 시각자료에서 ‘검색창’을 가리키며) 인터넷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양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궁금한 것이 생길 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궁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메일함’을 가리키며) 멀리 있는 사람과 메일을 주고 받으며 연락할 수 있고, (‘쇼핑’창을 가리키며) 먼 곳에서 파는 물건을 구매할 수도 있어요. 또한 (‘강의 영상’을 가리키며) 강의를 들으며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인터넷은 좋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되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인터넷은 처음 만들어진 의도와 달리 나쁜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어요. (‘거짓 뉴스’를 가리키며) 인터넷을 통해 거짓 정보가 전달되어 많은 사람이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댓글’을 가리키며) 남을 헐담하는 내용의 댓글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해요.

이렇게 인터넷처럼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 좋은 의도로 개발되었지만 잘못된 용도로 사용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 시대의 성전도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대답을 들은 후) 그래요.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예배)드리는 곳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제사(예배)드리는 것 외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말씀을 통해 알아보아요.

(마가복음 11장 15-18절을 어린이들과 함께 읽은 후, 말씀마당을 진행한다.)

말씀마당

READY!

- ① 말씀마당 그림책 2과와 가림막을 준비한다.
- ② 가림막을 2-1 앞에 끼워둔다.
- ③ 말씀마당 그림책 별지(2과 '제사') 뒷면을 가림막에 투명 테이프로 말아 붙여둔다.

GO!



(가림막에 붙인 별지 '제사'를 보여주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인가요? (대답을 들은 후, 별지 '제사'를 가리키며)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예배)드리는 곳이며,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매우 거룩한 곳이었어요.



(가림막을 치우고 2-1을 보여주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성전으로 가셨어요.

성전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중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을 돕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드릴 때 바칠 제물을 파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활에서 사용하는 로마 돈(테나리온)을 성전에서 사용하는 이스라엘 돈(세겔)으로 바꾸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기에 매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제물을 원래 값보다 훨씬 비싸게 팔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도 원래 값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고 있었지요.



(2-2를 보여주며)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성전에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며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을 보고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시고,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는 거룩한 이곳을 강도들이 모인 곳으로 만들었구나!” (막 11:17)

예수님은 자기의 욕심을 위해 성전을 이용한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곳을 알려주셨어요.



배움마당

GO!

오늘 배운 말씀을 스스로 기억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한다.

1. 예루살렘 성전이 기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 성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 왜 사람들은 성전에서 물건을 팔기 시작했을까요?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였어요.)

2.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화가 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성전에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며 장사를 했기 때문이에요. /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이에요.)

3.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행동하셨나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시고,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어요.)

㉮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엎으셨어요. 이것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나요?

(예수님은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싫어하세요. / 예수님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분이세요 등)

4.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무엇을 알려주셨나요?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곳임을 알려주셨어요.)

㉮

READY!

- 1 예수빌리지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질문 카드 2과'를 다운 로드하여 양면으로 인쇄한다.
- 2 질문 카드를 자른 후 바닥에 얹어놓는다.

GO!

- 1 교회에 일찍 온 어린이부터 두세 명씩 조를 만들고, 조별로 앉는다.
- 2 교사는 '손 탐 쌓기'의 주의 사항을 알려준다. (손을 먼저 내민 어린이부터 질문 카드를 가져갈 수 있고, 질문 카드보다 어린이의 수가 많을 경우, 질문 카드를 가지고 가지 못하는 어린이가 생길 수 있다.)
- 3 교사가 신호를 하면, 책상에 오른손을 내밀어 탐을 쌓는다.
- 4 손을 가장 먼저 내민 어린이부터 순서대로 질문 카드를 가지고 간다.
- 5 조별로 질문을 확인하고 서로 의논하여 답을 찾은 후, 질문과 함께 답을 이야기한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성전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욕심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음에 있는 욕심을 버리고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고전 3:16-17)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도 성전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내가 되어 하나님을 섬겨야 해요. 이것을 기억하며, 저를 따라 외쳐보세요.

“거룩한 내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라!”

READY!

필기도구와 풀을 준비한다.

GO!

1. 거룩한 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보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잘못된 일을 적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게 살아야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거룩한 내가 될 수 있을까요? 자유롭게 이야기해보세요. (대답을 듣는다.)

그래요. 거룩한 내가 되기 위해서는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야 해요. 왜냐하면 내 욕심을 따라 살면 내 마음이 더럽혀지기 때문이에요. 지금부터 욕심으로 더러워진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여 거룩한 내가 되기로 다짐해보아요.

여러분,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잘못된 일이 있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이야기해주세요. (이야기를 나눈다. 어려워할 경우, 교사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예 늦잠을 자고 싶은 욕심 때문에 주일 예배에 지각한 적이 있어요, 예쁘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며 찬양한 적이 있어요 등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어 고마워요. 이제 어린이용 교재를 보세요. 신호등이 있어요. 위험하여 멈춰야 함을 알리는 ‘빨간불’에 욕심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잘못된 일을 적어보세요. (시간을 준다.)

이렇게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잘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거룩한 내가 되기 위해서는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야 해요.



2.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잘못된 일을 회개하고, 욕심을 버리는 기도를 한다.

여러분,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잘못하여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대답을 듣는다.)

그래요. 잘 이야기해주었어요.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거룩한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빨간불’에 적은 내용들을 용서해주시고 죄를 짓게 했던 우리의 ‘욕심’도 버리게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기로 해요. 여러분이 적은 내용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며 조용히 기도한 후,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할게요. (기도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잘못을 고백하고 욕심을 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면, 거룩한 우리가 되어 살아갈 수 있어요. **D**

3. ‘빨간불’에 적은 내용과 같은 욕심이 다시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초록불’에 적는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빨간불’에 적은 내용과 같은 욕심이 다시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전하고 당당하게 건널 수 있음을 알리는 ‘초록불’에 적어보세요. (시간을 준다.)

- ㉠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을 기쁨으로 기대하며 일찍 자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만 집중해요 등

다 적었나요? (대답을 들은 후) 어떻게 적었는지 한 명씩 이야기해보세요. (이야기를 나눈다.)

잘 대답해주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D 거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거룩해야 할까요? (대답을 들은 후) 맞아요. 조금 전에 배운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무엇일까요? 조별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를 나눈 후) 조별 대표가 발표해 보세요. (발표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해주셨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레 19:2 하).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날마다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D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왜 기록해지는지 이야기를 나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기록해질까요? 조별로 이야기를 나누어보세요. (이야기를 나눈 후) 조별 대표가 발표해보세요. (발표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사는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세요.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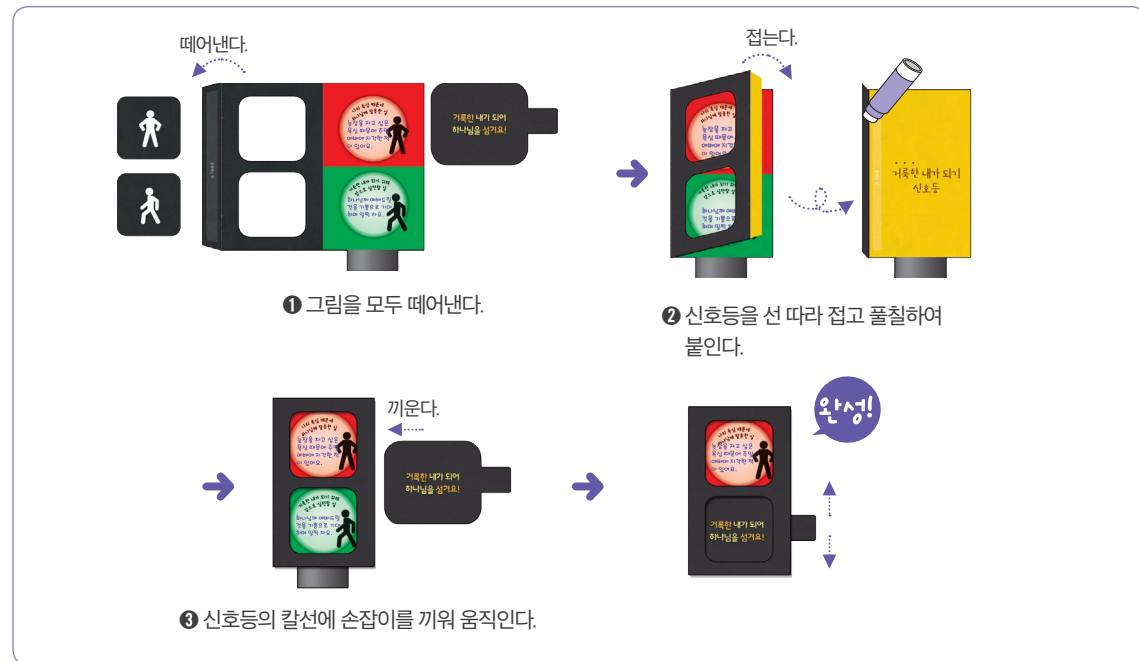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기록하리라”(민 15:40).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기록하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기록해진다고 말씀해주신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기록한 우리가 되어요.

기록한 내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D**

4. 신호등 만들기를 완성한다.

이제 저를 따라 '기록한 내가 되기 신호등'을 만들어보세요. (시간을 준다.)



다 만들었나요? 여러분에게 욕심이 생길 때마다 이 신호등의 '빨간불'을 보며 여러분이 멈춰야 할 일을 기억하고 실천하기로 해요. 또 '초록불'을 보며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을 기억하고 실천하기로 해요.

우리는 기록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날마다 기록한 우리가 되어 하나님을 섬겨요.

기도

하나님, 우리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거룩한 우리가 되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한 내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라!

